

김관영호 전반기 역대 최대 기업유치

민선8기 2년동안 130개 기업유치, 투자액 12조 8천억원 안정적 성장 가능 각종 혜택...기업도 전북 투자에 큰 호응

세일즈 도지사를 자처하며 전북 경제 부흥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8기 김관영호가 반환점을 돌아 3년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기업유치 실적이 12조 8,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으로 일차 창출은 물론 산업지도 재편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간 전북자치도의 기업유치 실적이 12조8,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양적 팽창에 그치지 않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년간(6월 기준) 130건, 총 12조8,394억원, 고용인원 1만 3,695명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집계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1년 동안(2022년 7월~2023년 6월)에는 60개사 5조3,51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2년

차(2023년 7월~2024년 6월)에는 70개사 7조4,883억원의 투자유치를 기록했다.

연평균 6조 4,197억 원에 해당하는 민선 8기 전반기 기업유치 실적은 민선 7기 연평균 2조8,338억 원과 비교 시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으며, 고용인원은 민선 7기 6,526명에서 민선 8기 들어 연평균 6,848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38개사 투자 규모 총 1조4,204억원, 고용인원 1,726명의 투자협약을 끌어냈으며, 대기업 계열사로는 한국미래소재를 유치했다. 이와 함께 동우화인켈 3,380억 원, 대승 1,012억원, 제이비케이랩 1,000억원 총 5,392억원의 1,000억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LS-엘엔에프 배터리솔루션 1조493억원, LS MmM 1조1,600억원

등 이차전지 산업 기반을 확장한 데 이어 오기노이드사이언스, 넥스트앤바이오 등 레드바이오 기업의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도의 투자유치 실적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은 민선 8기 들어서 친기업 정책인 17일 1공무원 전담제,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구성·운영, 환경간속 사전예고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기업들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북자치도로서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더불어, 올해에는 이달 기획발전특구 지정까지 이끌어 내며, 미래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 전북 투자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데서 감성을 보이고 있다.

전북 기획발전특구는 7개 시·도와 함께 최초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전주는 탄소 융복합 분야 30만

평, 익산과 정읍은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 식품 분야 21만 평, 김제는 모빌리티 분야 37만 평에 대해 지정됐다.

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 내 투자기업에게는 법인세(5년간 100%, 2년간 50%감면) 및 재산세(5년간 100%감면) 등 세제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 지원 확대, 규제 특례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올해 큰 성과 중 하나인 기획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우리 전북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갖추게 됐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성장 주도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 전북의 첨단산업 도약을 위한 토대를 더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유치기업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가동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별한 전북에서 기업과 도정이 함께 성공을 거둬 전북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RISE 시범대상 지역 중 처음...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서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풀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부 주관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대상 지역 중 처음으로 전북자치도에서 열리는 행사라 의미를 더했다.

박람회는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주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으로 2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열렸다.

아울러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JB지산학협력단), RISE대학교육혁신본부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한삼코리(주) 등 26개 도내 우수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소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유학생뿐 아니라 경기도, 대전 등 다른 지역 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6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해 전북 우수기업의 최신 취업동향과 정보를 취득하고 사전등록을 통해 인사담당자와 1:1 현장 면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26개 기업의 대표와 인사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박람회 현장에서 기업별로 상담부스를 마련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주력하는 F-2R(지역특화형비자) 및 E-7(전문인력) 채용기업이 참여해 직무와 업종에 따라 기업의 채용절차와 기준 등 외국인 학생들이 도내 기업에 취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전북자치도 취업박람회를 통해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풀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여성벤처CEO

230여명 전북에 집결

2024 여성벤처CEO

혁신아카데미 개최



'2024년 여성벤처CEO 혁신아카데미'가 27일과 28일 이틀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박금옥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도지사 김관영)는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윤미옥)와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회장 박금옥)가 주최하는 '2024년 여성벤처CEO 혁신아카데미'가 27일과 28일 이틀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여성벤처CEO 아카데미'는 여성벤처기업의 혁신 제품 및 우수 성과를 소개하고, 여성기업인으로서 시·후배 간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전국의 여성벤처기업 및 스타트업CEO 2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의 여성벤처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룹별 지식나눔 교류회를 통해 최신 산업 트렌드와 비즈니스 전략 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특별강연에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벤처CEO, 다르게 탁월하게'라는 주제로 여성벤처기업인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강조하며 우리나

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산업 분야에서 여성벤처기업의 역할을 당부했다.

소그룹 네트워킹은 전국의 여성벤처창업자 간 소통하는 시간으로 여성벤처 창업가로서 삶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격려하며, 각 산업별 비즈니스 현장 이슈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상생 네트워크 구축 시간으로 구성됐다.

둘째 날에는 힐링케어 프로그램, △전주 한옥마을과 봉어선 생태공원 탐방 등 전북자치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

험하고, 선·후배 간 티타임 멘토링 등 여성벤처기업CEO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여성벤처협회 윤미옥 회장은 "여성벤처CEO 혁신아카데미 개최 이래 가장 많은 여성벤처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여성벤처가 벤처업계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여성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협회도 전북자치도의 여성벤처기업과 협력하여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전국 여성 벤처기업인들의 전북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얻은 지식과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모인 전국 여성벤처기업인들이 미래로 혁신하고, 세계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5월에 창립한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는 2024년 전국여성벤처CEO 혁신아카데미 전북 개최, 여성벤처CEO 해외진출 및 기업성장지원 포럼 추진 등 본격적인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보건소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7월부터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업무 담당자들로, 7월부터 9월까지 총 50시간에 걸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습 위주의 심화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2008년부터 해마다 19세 이상 도민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추진하고 지역별 건강지표를 분석해 왔다.

분석 결과, 지표가 우수한 경우 보건소별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표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추진된다.

김정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보건소 담당자들이 지역별 맞춤형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농촌 상생협력 위한 새 ESG 패러다임 제시

전북자치도 등, ESG기업 공공기관 초청 토론회 개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과 함께 27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ESG 기업·공공기관 초청 농업농촌 상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가 ESG경영 실천을 극대화하고 농어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머리를 맞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과 함께 27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ESG 기업·공공기관 초청 농업농촌 상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ESG 실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민간이 함께, 농업농촌을 통해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도의 정책사업을 연계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조태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및 민간기업 8곳과 공공기관 6곳의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사업설명, 사례발표, 전체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이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에 관해 설명하며 본격적인 토론의 막이 올랐다.

이어 한국서부발전이 사회공헌 활동 전라체계와 체인지 메이커, WP감성발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SG 경영의 선도기업인 (주)대승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동내용, 지역소멸 대응, 농촌 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ESG 실천사례를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도의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전체토론은 조태용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전체토론에서 도와 관계기관들은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협력사업의 연계방안, 기업·기관의 ESG 경영 실천에 있어 농업농촌의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에 많은 기업이 ESG에 관심이 적은 현실을 인지하고,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는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농어촌 상생 협력을 통한 ESG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2025년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추진

7월15일부터 19일까지 신청

전북자치도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7월 19일까지 접수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지사 인증상품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사가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전북 대표 상품으로 선정해 품질을 인정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지사 인증상품의 신청 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소비자용품)으로 기업별 대표 상품 1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

새만금청, 기자 초청 언론홍보 실무 교육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7일 청내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취재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10.1조원의 투자유치 성과와 기본계획 재수립 등 굵직한 현안들로 새만금 관련 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언론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현직 기자인 머니투데이 전북 취재본부장 박민홍 기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언론 홍보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에서 강사는 새만금 등 관련 취재경험과 사례를 제시하면서, 효과적인 보도자료 작성기법과 언론 대응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강사인 박민홍 기자는 "새만금개발청은 언론에 적극적이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가깝게 소통하려는 직원들의 열의를 느끼게 되어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